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이 중독에 미친 실증적 분석

이 동 수*, 김 효 순**, 김 은 회***

An Analysis on the Addiction to the Internet Environment of Adolescents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ee Dong Su *, Kim Hyeo Soon **, Kim Eun Hee ***

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이 인터넷 환경에 강하게 노출되어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요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요인에서는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의 합리적 관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internet environment(expect, approach, anonym) in adolescents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AMOS 6.0). A few major findings are reported:

First, the internet environment for example expect, anonym in adolescents affected the internet addiction. Second, the internet environment for example expect, anonym in adolescents which are analysis on the control effects to the impact of the relation of personal factors and family factors affected to differ the internet addiction.

▶ Keyword :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인터넷 환경(internet environment), 청소년(adolescents), 기대(expect), 접근성(approach), 익명성(anonym)

• 제1저자 : 이동수 교신저자 : 김은희

• 투고일 : 2009. 2. 19, 심사일 : 2009. 2. 22, 게재확정일 : 2009. 3. 11.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초빙교수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강사

I. 서론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었고,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이미 학교나 가정생활 모두에서 중요한 일부분이다. 인터넷 활용은 정보화 사회를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일부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인터넷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6][8][19].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환경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다[23]. 이처럼 인터넷은 청소년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비친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과제를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상은 더욱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중 27.6%가 가벼운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났고, 3.1%가 심각한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났다[1]. 이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경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이 되었으나, 주로 몇 가지 개인 및 환경적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성향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있을 뿐,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터넷 환경 노출수준과 인터넷 중독수준 사이의 조절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또한, 개인적 요인인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가정적 요인인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구제적인 통계분석기법으로 SPSS 14.0 통계프로그램과 AMOS 6.0 버전을 통하여 변수의 측정도구 검증과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현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17].

인터넷 중독이 다른 중독현상처럼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약물중독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력 상실, 욕구와 내적증상, 금단증상, 사회적 고립감, 결혼불화, 학업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하였다[28]. 인터넷에 몰입하면서 주변의 일상사에 흥미를 잃고, 현실의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거나 무심해지며, 심한 경우 대인 기피증까지 보인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용 시간을 점차 늘여야하는 내성 현상이 있으며,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불면, 환상, 강박적 사고를 하는 등의 금단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로 정의한 것 이외에도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중독(Cyber Addiction), 인터넷의 과다사용, 인터넷 중후군(Internet Syndrome), 인터넷의존((Interne Dependence), 인터넷 남용(Internet Abuse), 웹바홀리즘(Webaholism), 가상 중독(Virtual Addiction),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25].

2.2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2.2.1 개인적 요인

첫째, 인터넷 중독의 전반적인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한다. 이것은 남성이 기계를 다루는데 두려움이 적고 직업상 남성이 컴퓨터를 다루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연구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측정도구와 중독기준이 다르고, 표집 된 대상도 다양하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중독에서 성별과 관련된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는 남성들의 인터넷 중독자 비율이 여성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12][18].

둘째, 스트레스란 유기체의 적응과 조절에 가해진 압력이나 외부의 요구적인 힘을 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인터넷 이용결과에 대한 기대,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을 조사한[20] 연구에서 인터넷의 사용 집단을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 위험군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독 위험군이 비 위험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는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과 환경문제에 의한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스트레스가 강하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수행형태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실시하고 조직하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과제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측정이다.

2.2.2 가정적 요인

첫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간의 공통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의 기능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청소년비행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부모와 의사소통 형태가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회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4).

둘째, 양육태도라 함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을 말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중독자들이 실제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소년 중독자들은 부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28).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9)이고 비성취적(8)이며 거부-통제적(8)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지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았으며 적대 지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다(22).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일수록, 부모와의 갈등 관계가 없는 청소년들인 경우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았다(23).

2.2.3 인터넷 환경

첫째,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터넷 기대의 어떤 속성들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20). 즉 인터넷을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갈등 해소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실에서의 욕구충족이나 갈등 해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현실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거리,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 동기과 인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3), 접근 가능성은 쉽게 찾아가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비용이 싸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어느 때든 찾아가 수 있는 것을 말한다(10).

셋째,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익명성(28)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제재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독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2.3 인터넷 중독관련 선행연구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연구로(5)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자존감과 공격성은 낮았고, 외로움, 우울은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 존중감, 우울, 감각 추구성향과의 관계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73.1%가 인터넷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인터넷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인터넷 중독 상태가 심각할수록 자기 존중감이 낮으며 우울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인터넷 중독과 감각추구도의 관계는 인터넷 중독 상태가 심각할수록 감각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13).

청소년들은 채팅이나 머드게임을 하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를 가상공간에서 채우려고 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받아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인터넷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1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는 시간, 유형, 인터넷 기대,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수준(지각된 현실감, 매개된 실제감), 가상공간의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개

인적 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이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기대, 즉 인터넷을 이용한 후 경험 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11].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이에 대해 환경요인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독립변수로서 인터넷 환경요인을 인터넷기대, 접근성, 익명성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인터넷 중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로는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선정하고, 가정적 요인으로는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한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가설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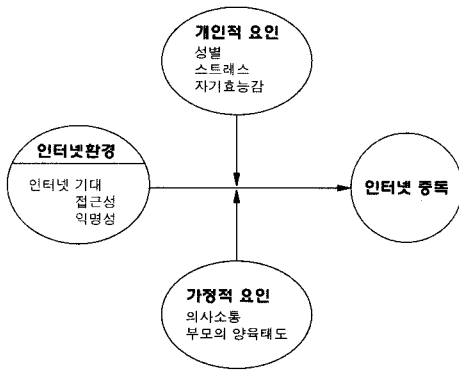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1. Research Model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1.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를 것이다.
1-2.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2.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를 것이다.
- 2-2.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3.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를 것이다.
- 3-2.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IV.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가설의 모형 검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터넷환경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동년 12월5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와 전문계 포함 4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총 560부 중 회수된 설문지 53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설문응답자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Table 2. Demographics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371	68.8
	여학생	168	31.2
연령	16세	11	2.0
	17세	64	11.9
	18세	206	38.2
	19세 이상	258	47.9
학교	인문계	263	48.8
	전문계	276	51.2
학년	1학년	61	11.3
	2학년	184	34.1
	3학년	294	54.6

4.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요인분석의 적재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KMO (Kaiser-Meyer-Olkin)는 0.846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인터넷기대, 익명성, 접근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인터넷 중독 등 8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 적합도로 χ^2 값은 1145.994, df는 269,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GFI), 표준적합지수(NFI), 중대적합지수(IFI), TL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고, RMR(원소간평균차이)의 값은 0.045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근차오차평균 제곱근차이)값은 .078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15].

표 3. 타당성과 신뢰도분석결과 및 적합도
Table 3. Confirmatory analysi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Fitnes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1. 인터넷기대	v1	.794						
	v2	.667						
	v3	.768						
	v4	.850						
	v5	.653						
	v6	.657						
2. 익명성	v1		.831					
	v2		.825					
	v3		.711					
	v4		.613					
	v5		.699					
	v6		.619					

3. 접근성	v1							.731					
	v2							.768					
	v3							.788					
	v4							.699					
	v5							.689					
4. 스트레스	v1								.681				
	v2								.743				
	v3								.731				
	v4								.657				
	v5								.637				
5. 자기효능감	v1									.742			
	v2									.758			
	v3									.782			
	v4									.720			
	v5									.646			
6. 의사소통	v1										.683		
	v2										.819		
	v3										.851		
	v4										.762		
7. 부모양육태도	v1											.660	
	v2											.753	
	v3											.759	
	v4											.739	
8. 인터넷중독	v1												.657
	v2												.663
	v3												.628
	v4												.702
	v5												.708
	v6												.673
	v7												.737
	v8												.626
요인값	3.66	3.14	2.71	2.72	2.84	2.64	3.86	4.40					
분산비율	8.52	7.31	6.31	6.33	6.61	6.15	8.99	10.25					
누적비율	18.77	26.08	45.34	39.05	32.69	51.50	11.72	10.25					
신뢰도 Cronbach Alpha	.866	.844	.777	.780	.792	.807	.733	.861					
적합도 지수	RMR: .046, GFI: .856, NFI: .813, RFI: .792, IFI: .851, TLI: .833, CFI: .850, RMSEA: .078												

4.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4.0 과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21)(24).

카이제곱 값은 1145.994, 자유도(df)는 269, X² 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절대적합지수GFI, 충분적합지수 NFI, IFI, TLI, CFI와 간명적합지수 AG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046으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근차평균제곱근차이) 값은 0.078로 0.08보다 작게 나타났다(21).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4. Fitness index of Model

구분	절대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적합지수	1145.994 (.000)	269	.906	.046	.078
구분	중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902	.903	.910	.899	

본 연구는 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21).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기대, 익명성, 접근성과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기대, 익명성, 접근성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다.

첫째, 인터넷 기대가(.549)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집단일수록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현실세계의 어려움과 욕구를 해소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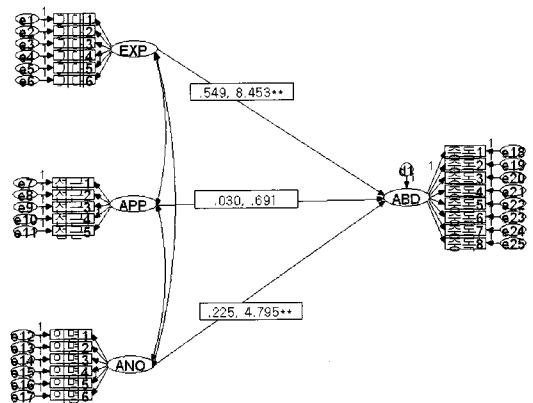
둘째, 익명성(.225)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상황에 더 노출하게 되는 아이들은 실명을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접근성(.030)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Table 5.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 설	경로계수		표준 오차	C.R. (t)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표준화				
1. 인터넷기대 → 중독	.591	.549	.070	8.453	.000	채택
2. 익명성 → 중독	.173	.225	.036	4.795	.000	채택
3. 접근성 → 중독	.024	.030	.035	.691	.490	기각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궁극적으로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로계수(*: p<0.05, **: p<0.01)/ C.R. (t)
2. EXP: 인터넷기대, APP: 접근성, ANO: 익명성, ABD: 중독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Fig. 2. Summary of Findings in Model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을 하였다.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결과 <표 6>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 인터넷 기대(.520, .647)와 익명성(.254, .087)은 중독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 인터

넷 기대(.558, .558)와 익명성(.153, .208)은 중독에 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 인터넷 기대(.627, .537)와 익명성(.094, .293)은 중독에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인적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Table 6. The control effects of personal factors

가 설		기 대 → 중독	접근성 → 중독	익명성 → 중독	
성 별	경로 계수	남학생	.520	.040	.254
		여학생	.647	.021	.087
	C.R	남학생	6.707	.746	4.522
		여학생	4.854	.273	1.010
	p값	남학생	.000	.456	.000
		여학생	.000	.785	.312
차이여부		있음	없음	있음	
스 트 레 스	경로 계수	고	.558	.008	.153
		저	.558	.044	.208
	C.R	고	6.077	.126	2.479
		저	5.868	.668	2.987
	p값	고	.000	.899	.013
		저	.000	.504	.003
차이여부		있음	없음	있음	
자 기 효 능 감	경로 계수	고	.627	.005	.094
		저	.537	.061	.293
	C.R	고	5.445	.075	1.380
		저	6.823	1.072	4.706
	p값	고	.000	.940	.168
		저	.000	.284	.000
차이여부		있음	없음	있음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개인적 요인인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여부를 검증결과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중독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가

정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여부를 검증결과 <표 7>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 인터넷 기대(.543, .547)와 익명성(.219, .237)은 중독에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검증결과 인터넷 기대(.528, .546)와 익명성(.288, .163)은 중독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중독에 가정적 요인인 의사소통과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여부를 검증결과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중독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정적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
Table 7. The control effects of homstic factors

가 설		기 대 → 중독	접근성 → 중독	익명성 → 중독	
의 사 소 통	경로 계수	고	.543	.100	.219
		저	.547	.073	.237
	C.R	고	6.674	1.763	3.668
		저	5.147	1.002	3.148
	p값	고	.000	.078	.000
		저	.000	.316	.002
차이여부		있음	없음	있음	
양 육 태 도	경로 계수	고	.528	.005	.288
		저	.546	.046	.163
	C.R	고	5.490	.073	3.824
		저	5.826	.765	2.621
	p값	고	.000	.942	.000
		저	.000	.444	.009
차이여부		있음	없음	있음	

V.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요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요인에서는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의 기대와 익명성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과 스트레스, 정보 등을 공유하고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공간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기대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영향을 미쳤고, 익명성은 남학생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기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터넷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인터넷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적 요인(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가정적 요인(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로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잘 유지 된다면,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1] 김선우,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2월.
- [2] 김순태, "고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존중감, 우울, 감감추구성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년 2월.
- [3] 김영중,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 [4] 김윤희,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년 2월
- [5] 김종범,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2월.
- [6] 김진숙·최수민·강진구, "청소년의 pc중독 사례와 상담적 접근," 한국청소년상담원, 103-118쪽, 2002년, 12월.
- [7] 남영옥·이상준, "청소년의 사이버섹스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제9권, 제3호, 185-212쪽, 2002년, 2월.
- [8] 류진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년, 2월.
- [9] 박정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년, 2월.
- [10]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무사, 1993년.
- [11] 심옥녀,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년, 2월.
- [12] 안정임·김동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후후유 및 음란물 접촉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00년.
- [13] 양돈규,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117-136쪽, 2000년, 8월.
- [14] 오현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2월.
- [15] 유일·김재전·노희옥, "인터넷쇼핑몰에서 웹사이트 사용성, 신뢰, 만족 및 재구매 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2권, 제5호, 191-202쪽, 2007년, 11월.
- [16] 윤영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청소년의 문제와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년.
- [17] 윤재희,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년, 2월.
- [18]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년, 2월.
- [19] 이수진·홍세희·박중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연관성," 교육심리연구, 제19권, 1179-1197쪽, 2005년, 9월.
- [20] 이시형·이세용·김은정·오승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1년.
- [21] 이학식·임지훈,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AMOS 6.0," 법문사, 2007.
- [22] 정진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2월.

- [23] 조준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2월.
- [24] 채규진·장대성·김민수, "인터넷 정보품질이 직무만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3권, 제6호, 325-332쪽, 2008년, 11월.
- [25] Goldberg, I.,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Apr. 1996.
- [26]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y of A New Clinical Disorder," May 1996.
- [27] Young, K. S. "Psychology of computer use: XI.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A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p. 79, Mar. 1998.
- [28] Young, K. S. "Net compulsion: The Lastest Treads in The Area of Internet Addiction," May 1999.

저자 소개



이 동 수

2005년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2009년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초빙교수

관심분야: 정책분석, 정책평가, 조사방법론



김 효 순

2009년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9년 현재: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 강사

관심분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김 은 희

2004년 : 조선대학교 행정학(행정학박사)

2009년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시간강사

관심분야: 정책학, 환경정책, 조직관리